

제목: 바르게 살자

이푸르메 지음

준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써, 법무에 관련된 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일정을 조정해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중이다. 준길이 열심히 일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하얗게 질려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다. 그 남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이유는 남자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함이었다. 준길은 질려있는 남자를 안심시키며 법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두루 설명해준다. 남자는 그런 준길의 설명을 들으며 자식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냈고, 준길은 그 남자의 자애심에 감동하여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한다.

때는 준길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었을 시기였다. 집안과 동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경찰공무원이 되었던 준길은 경찰 업무를 충실히 해내어 짧은 시일 동안 빠르게 진급한다. 그러나 경찰도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아무리 진급을 해도 월급은 딱 오르지 않는다. 준길에게는 부양해야 할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한 달에 한번 받는 월급으로는 쉽사리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결국 준길은 경찰의 직권을 이용한 부정축재에 손을 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청 경리와 사무조사에서 그 행실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스스로 사표를 쓰고 경찰 제복을 벗고야 만다.

준길이 경찰직을 상실함에 따라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다. 준길은 아내와 이혼하고, 남은 퇴직금과 월급을 위자료로 모두 넘긴 채 떠돌이 생활을 계속한다. 정처 없이 한참 떠돌던 준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간간히 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준길이 지금과 같이 그나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데는 우연한 기회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취직하면서 부터다. 준길은 그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바르게 살자'라는 좌우명도 얻게 된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근무하며 법무사항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상담해주게 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준길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청렴한 국가로써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등장인물>

준길: 주인공.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경찰에 취직했으나 부정축재로 인해 경찰직을 상실하고 떠돌이 생활을 거쳐 '바르게 살자'라는 가치관을 얻은 뒤,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나이다.

박변호사: 자칭 박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길과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

남자: 준길에게 상담을 받으러 급히 찾아오는 사람. 자식에 대한 자애심이 뛰어나 준길을 반성케 한다.

아내: 준길의 아내. 준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으나, 준길이 잘못을 저질러 경찰직을 상실하게 되자 무섭게 돌아서버린다.

최경장: 준길이 경찰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경찰 선배. 무뚝뚝하고 공사구분이 확실하며, 죄를 지으면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

어머니: 준길의 어머니. 준길을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동료 1: 준길이 경찰공무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경찰 후배. 준길을 믿어주는 든든한 사람이다.

아저씨: 어머니와 함께 준길을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 준길이 경찰이 되었을 때, 어머니 후회시킬 짓은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각종 사장들: 경찰직을 상실한 준길에게 막노동을 시켜, 세상의 이치를 깨달게 도와주는 존재.

고객들: 경찰직을 상실한 준길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게 도와주는 존재.

아들들: 준길의 두 아들. 준길이 무척 그리워하고, 사랑스러워 하는 존재.

교통경찰: 경찰직을 상실한 준길에게 과속 딱지를 끊는 사람. 준길이 경찰직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준길을 비춘다. 텅 빈 변호사 사무실 안에 준길 혼자만 책상을 지키고 앉아서 서류를 뒤적거리며 일을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온다.)

준길: (전화를 받으며) 네, 여보세요?

박 변호사: 저기, 김 사무장님. 저 박변인데요, 오늘 옛날에 맡았던 사건도 끝났고 해서 사무실 변호사들하고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식하기로 했어요. 나올래요?

준길: (좀 알겠다는 표정으로) 아, 오늘 회식하세요? 근데 어찌죠?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 (놀라며) 네? 일하고 있어요? 일요일에도? 지금 사무장님, 사무실이세요?

준길: 일이 좀 밀려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네요.

박 변호사: (아쉬운 목소리로) 이런……. 아쉽네요. 사무장님 얼굴 보면서 다 같이 한잔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음에 해야겠네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 보면 바쁠 것 같은데, 이만 끊을게요.

준길: 네. 들어가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진다. 준길은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거리며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준길은 일을 마치고 가방에 서류뭉치들을 챙긴 뒤 퇴근 준비를 한다. 준길이 콧노래를 부르며 홀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산발이 된, 신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온다.)

남자: (무척 다급한 목소리로) 저기……저기, 변호사님 계십니까? (퇴근 준비를 하던 준길을 보더니) 아 니, 저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늦었나요?

준길: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 (놀라있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저, 상담 좀 하려고 왔는데요…….

준길: 아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 (무척 긴장되어 있는 듯한, 손을 가슴에 짚고) 그……그게……. 제 아들이……. 휴우.

(남자는 적잖이 긴장되어 있다. 준길은 일어나서 사무실 냉장고를 뒤적여 캔 커피 하나를 꺼내 온다.)

준길: (커피를 건네며) 일단 이 커피 드시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남자는 준길이 준 커피를 마시면서 연거푸 한 숨을 내쉬며, 숨을 고른다.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연다.)

남자: (차분히) 일단 제 이름은 이진호고요. 나이는 원일곱이예요……. 사실 제가 결혼을 했다가 한번 이혼을 하고, 다시 중국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때 제 와이프가 애를 한명 데려왔지요. 애가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쁘던지, 정말……. 뭘 해도 다 이뻐요. 제 와이프랑 저는 그런 애를 정성껏 키웠지요.

준길: (남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아, 네. 아드님이시군요?

남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낮부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경찰인 것 같은데, 제 아들이 돈이 필요했는지…….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걸려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대요…….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저는 그 애를 정말 금쪽같이 키워왔는데……. 제 아들이 잘못된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다 나오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준길: (고민하다가 서류 가방에서 이면지 한 장과 볼펜을 꺼내고, 자신이 한 말을 받아 적으며 남자에게 보여준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다뤄져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해서 나라에서 근절하려고 안달복달인데……. 초범이고, 아드님께서 듣자하니 나이가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경찰에서 훈방조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게다가 사건도 사건인지라, 이 사건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검찰에서 사건의 경중을 파악한 뒤, 법원에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남자: (한숨을 쉬며)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 아들의 형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건가요?

준길: 네. 검찰은 기본적으로 구형하는 형이 조금 센 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반론을 잘 하면 아무래도 형량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남자: (한숨을 쉬면서 지갑을 꺼내 가족사진을 준길에게 보여주며) 제가 우리 아들, 나중에 저처럼 결혼해서 이쁜 색시 데러오면 집이라도 하나 전세로 얻어주려고 5천만 원을 모아뒀어요. 자기 아빠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주려고 해도 자식 주제에 어른 돼서도 부모에게 손 벌릴 순 없다며 알바도 뛰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애인데……. 이렇게 될 줄이야……. (눈시울이 붉어진다.)

(남자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에 대해 말하자, 준길은 숙연해진다. 사무실엔 남자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남자: (옷에 눈물을 닦고 진정하며) 음…….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준길: 그게……. 어……. (순간 남자의 말에 당황한다.) 저는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예요. 정확한 수임료는 변호사님들과 얘기해봐야겠지만, 한 120만원……아! (자신도 모르게 수임료를 몇 백만 원이나 깎아 부른 준길은 적잖이 당황해한다.)

남자: 왜 그러시나요?

준길: (고개를 내저으며, 마음을 고쳐 잡고) 아니, 아니예요.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남자: (알겠다는 듯)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아들을 다시 집에서 볼 수 있을 거란 확신도 들었어요! 그럼……제가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 좀 나눈 뒤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길: (손을 내저으며) 어유, 감사하다뇨.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조심해서 들어가 보세요.

남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준길은 퇴근 준비를 마저 한 뒤, 사무실의 불을 끄고 거리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는 가로등 불빛만 켜진 채, 정적이 흐르고 있다.)

준길: (관객을 향해) 아까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기 아들이 친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리 정성을 다하고, 무척이나 사랑할 수가 있을까? 아들을 돌이나 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친아빠였던 나보다 몇 갑절은 더 아빠다운 아빠 아닌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런데 지금 유치장에 잡혀있다는 그 아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갑자기 내 아들이 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준길은 거리에서의 쓸쓸한 독백을 마친 뒤, 집으로 올라온다.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고시원 현관을 열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짐을 정리한 뒤 이불을 펴고 눕는다. 갑자기 준길의 관절에서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준길은 고통스러워 하다가 근처에 있던 약을 먹고 진정한 뒤, 다시 눕는다.)

준길: (혼자만 들을 수 있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무대가 바뀐다. 때는 준길이 경찰시험에 합격하여 경찰로 막 임용되었을 시기다. 경찰시험을 봤었던 준길은 경찰 합격증서를 들고 준길의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으로 막 뛰어온다. 준길의 어머니는 장하다며 준길을 동네가 떠나가라 칭찬해준다. 준길은 합격증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로 첫 출근을 한다. 준길은 경찰제복을 차려 입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께 달려간다.)

준길: (한껏 들뜬 목소리로)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제복을 차려입은 준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이야……. 내 새끼 다 컸다. 역시 남자는 제복 빨이라더니, 틀린 말은 아닌가보네. 장하다! 내 새끼!

준길: 이제부터 파출소로 출근해요. 앞으로 경찰 일하면, 야근에 당직에……. 할 일이 좀 많아져서 어머니 얼굴 자주 못 볼거 같은데……. 울 엄니 섭섭해서 어쩔까?

어머니: (절대 아니라는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섭섭하긴 무에 섭섭하나, 아이다. 너 같은 순사들이 나쁜 놈들 썩 다 때려잡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 뺏고 잘 수 있는 거 아이겠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준길: 아니 그래도……. 명절 때도 못 뵈 수 있는데?

어머니: 짜속……. 너가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잖니. 일이나 열심히 혀.

준길: 언제 한번 우리 집이나 올라오세요. 엄니가 되가지고 서리 한 번도 내 사는 집에 안 올라와요, 왜. 자식 사는 집 정도는 구경 한번 해야죠? (뺨친 척 연기하며)

어머니: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으며) 아이다. 내 가면 너 며느리만 고생한다. 너도 순사일 한다고 바쁜데, 이 엄마가 가서 괜히 방해만 하면 어디 쓰것나. 나는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아무 걱정 붙들어 매고 그저 그냥 느그나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살면 된다. 알았제?

(한창 어머니와 준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낮은 담장 너머로 누가 지나간다. 이웃집 아저씨다. 이웃집 아저씨는 준길이네 고향집을 지나가던 도중,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습관적으로 준길이네를 본다. 그 순간, 아저씨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준길과 눈이 마주친다.)

아저씨: (몹시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이게 누구여. 준길이 아이가?

준길: (몹시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저씨: 짜속, 경찰시험 본다고 고향집에도 한번 안내려오더니……. 벌써 안본지 몇 년이나 됐더라…….

준길: (웃으며) 죄송해요. 좀 그동안 바빴죠.

아저씨: 죄송할 거 없다. 느그 어머니한테나 잘해드려라. (어머니를 향하며) 아~ 저 사람 참, 너 경찰 됐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웃으며, 아저씨를 바라보며) 허이구, 참. 내가 한 게 자랑이가? 당신은 자식 공무원 됐다고 회관에서 고스톱 치려고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한달 내내 자식 자랑 했잖소. 당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아저씨: (헛기침 하며) 알았수다! 내가졌소. 준길아, 너 진짜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 절대로 어머니 후회할 짓 만들지 말그라.

어머니: (당연하다는 듯) 아이고, 남 집 제사상에 왈리왈시하기는……. 우리 준길이는 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서리, 나 실망시키는 일 만들지 않을거고, 앞으로도 그럴 꺼다. 그렇지, 준길아?

준길: 네! 열심히 살게요! (웃으며)

(그때 갑자기 준길의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 새로 출근하게 된 파출소의 최경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준길: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최경장: (무뚝뚝하게) 어. 나 최경장인데, 너 어디야.

준길: 저 파출소 일 다 마치고 어머니 좀 뵈려고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경장: (여전히 무뚝뚝하게) 그래? 그럼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설설 올라 와.

준길: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최경장: 아니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계에서 너한테 수사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다. 첫 수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올라와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상!

(전화가 끊어진다.)

어머니: 왜? 무슨 일 있나?

준길: (아쉬워하며) 어머니, 저 이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에서 찾아요.

어머니: (아쉬워하며) 예구……. 우리 준길이 순사 다 됐네……. 째. 그랴. 열심히 하구. 전화해라.

준길: 넵! 나중에 다시 찾아뵙게요!

어머니: 그랴. 잘 가구.

(준길은 다시 파출소로 복귀한다. 준길은 파출소에서 처음으로 받은 수사 지령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이후로도 파출소에서는 준길에게 계속해서 수사 지령을 내렸고, 그 때마다 준길은 맡은 임무를 척척 해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게 된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임은 쌓여가고, 마침내 준길은 진급을 하기 시작한다. 준길이 진급하자, 주위 동료들은 그를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최경장: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이야……. 이제 어이라고도 못하겠네. 순식간에 몇 단계나 건너뛴 거…….

준길: 아닙니다. 선배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최경장: 짜식아, 그렇게 형식적인 말은 안하는 거야.

준길: 네, 죄송합니다…….

최경장: (준길의 어깨를 장난삼아 툭 치며) 짜식, 이제 말 뉘라. 같은 경장끼리 죄송은 무슨…….

동료 1: 저 김경장님, 그럼 오늘 승진 기념으로…….

준길: (표정을 익살스럽게 찡그리며) 뭐? 쏘라고?

동료 1: (입술을 내밀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준길: (찡그렸던 표정을 풀고 웃으며) 아이, 당근 싸야지.

동료 1: (웃으며) 와! 진짜요? 아싸!

준길: (들뜬 동료를 진정시키며)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 먹자. 오늘은 내가 아내한테 가봐야 해서…….

동료 1: 좋아요!

준길: 참나……. 애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네. (웃으며) 저 그럼, 최경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기다려서요.

최경장: 응, 그래. 들어가 봐.

준길: 감사합니다.

(준길은 파출소를 뛰쳐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간다. 아파트 현관을 열자, 준길의 아내가 뛰어나와 준길에게 안긴다.)

아내: (기뻐하며) 여보, 수고했어요! 아빠 승진했다는 얘기 듣고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준길: 그거 참 다행이네.

아내: (웃으며) 그럼 여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얼마나?

준길: 글썄……. 공무원이라 월급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 않을걸?

아내: (체념하며) 예휴, 그럼 그렇지. 암튼 승진 축하해요. 그동안 당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 가서 밥 먹어요. 내가 특별히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준길: 여보, 고마워요~

(준길은 식탁에 앉아 홀로 밥을 먹는다. 아내가 차려준 갈비찜을 먹던 준길의 눈에 갑자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들이 들어온다. 거실 한복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두 아들을 보니 준길은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 고개를 돌려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 다시 눈에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어지러이 놓여 있는 고지서들이다. 두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청구한 수업비, 세금과 각종 유지비용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식탁 위에 놓여있는 고지서들을 본 준길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그중, 두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청구한 수업비 고지서를 습관적으로 열어본 준길은 깜짝 놀란다.)

준길: (화들짝 놀라며) 여보, 이거 학원비 있잖아요. 이렇게 비쌌던가?

아내: 큰 애가 30만에 작은 애가 25만이니까, 55만원 내야 해요.

준길: (혼잣말로) 아, 참 비싸네…….

(준길은 고지서를 내려놓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한다. 큰 액수가 적힌 고지서를 본 준길은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준길은 밥을 먹다 말고 생각에 잠긴다.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커 갈수록 돈 들어갈 일은 자꾸만 생겨나는데, 과연 그 경찰의 적은 월급으로 안정된 삶을 취할 수 있을지, 준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달에 한번 받는 경찰관 월급으로 재테크는 고사하고 전셋집이 아닌, 번번찮은 집하나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고민이 깊어갈수록 밥상에 놓인 수저 들기는 더욱 힘들다.)

아내: (준길이 뭐하는지 궁금해 하며) 여보, 뭐해요? 갈비찜 다 식겠어요. 빨리 먹고 와요.

준길: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알았어요.

(준길은 밥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는다.)

준길: (관객을 향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힘들다는 경찰 일 해가며 받은 돈으로 돈 걱정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상당수는 애들 좀 키워봤을거 아니요. (관객 한명을 지목하며) 어때요? 애들 머리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들은 자꾸 생기는데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하면. 버티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요. 월급 딱 오르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니까 한숨부터 쉬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소. 가정을 위해 일하면서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요, 돈! (한숨 쉬며) 이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영악하게 살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신분이

경찰이잖소? 그걸 활용하자는 거지. (생각에 잠기는 척하며) 가만 있어보자……. 음, 내가 이래봐도 수사과에서 일하는 경장이란 말이지……. 올 커니! 그러면 되겠구먼! (한 관객 앞으로 다가가서) 내 계획이 뭐 줄 아시오? 훗, 두고 보시오. 아주 완벽한 계획이니까. (섬뜩하게 웃는다.)

(준길은 다음날, 이전처럼 파출소 수사과 경장 신분으로 출근한다.)

준길: (웃으며) 좋은 아침~!

동료들: 안녕하세요, 경장님.

준길: (인사를 받아주며) 좋아요, 흠……. 오늘 뭐 지령 내려온 거 있어요?

동료 1: 네, 서부경찰서에서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준길: 뭘니까?

동료 1: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과 협업으로 성매매 추방기간을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공문과 지침입니다. 성매매 추방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까지고, 오늘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유흥업소가 가장 활성화 되는 때인 오후 9시부터 순찰 단속입니다.

준길: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좋아, 고마워요. 이따 9시에 순찰 나가는 거 확실하지?

동료 1: 네.

준길: 그래. 아, 잠깐 일들 좀 하고 있어봐. 나 담배 한 대만 좀 태우고 올게.

동료 1: 아, 담배 좀 끊으시지……. 다녀오세요!

(준길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는 척하며 파출소 밖 한 구석으로 나간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이 있나 없나 살핀다.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준길은 길가를 돌아다니며 미리 휴대폰으로 찍어둔 유흥업소들의 전화번호를 단속수첩에 일일이 적는다. 그러더니 준길은 적어둔 전화번호에 일일이 전화를 건다.)

준길: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네, 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경장입니다. 내 이따가 그 쪽 업소에 나 혼자 잠깐 들르겠습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사장: (궁금해 하는 말투로) 아니, 경장님께서서는 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길은 전화를 끊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다.)

준길: (시계를 확인하며) 음……. 지금 시간이……. 2시네? 예구, 맞다! 나 잠깐 순찰 좀 돌고 올게요.

동료들: 다녀오세요!

(준길은 순찰차를 몰고 만나기로 한 유흥업소 사장을 몰래 만나러 간다. 길가 한구석에 순찰차를 대 놓고, 준길은 유흥업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준길: (웃으며) 안녕하세요, 아까 온다고 했습니다.

사장: (얼떨떨한 표정으로) 네……. 근데 하실 말씀이란 것이……. 흑여…….

준길: (목소리를 낮게 깔며) 네. (긋가에 대고) 당신 좀 조심해야겠어. 지금 여성부하고 경찰청이 성매매 단속주간이란 걸해요. 오늘 오후 9시부터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야.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 그럴 거고. 이번 주는 오후 8시 되면 여기 문 닫고 불 끄고 빨리 퇴근하는 게 좋겠어.

사장: (놀라며) 네? 그게 사실인가요?

준길: 속고만 살았나. 진짜야. 앞으로도 경찰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알려줄게. 근데 잠시만……. 여기 성매매 업소라든지, 노래방들이라든지, 다 전화번호로 연결되어있지? 무슨 정보통신망처럼.

사장: 네. 아무래도 단속을 피하려다 보니 그렇게 상부상조 해야지요.

준길: (다시긋가에 대고) 그럼 당신이 책임지고 주변 업소들에게도 다 돌려. 경찰하고 정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으니깐 조심하라고.

사장: 네, 감사합니다.

준길: 그래요.

사장: (주변 눈치를 살피고, 속삭이며, 봉투를 건네며) 이걸 받으십시오. 성의입니다. 앞으로 정보만 미리 알려주시면, 주위 업소들 뭉까지 다 모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준길은 받은 봉투를 품에 넣고 터벅터벅 유흥업소 밖으로 걸어 나온다. 준길은 다시 순찰차를 타고 주위를 순찰하는 시늉을 한다. 순찰을 마친 준길은 파출소로 복귀한다. 시간은 오후 8시다.)

최경장: (소리치며) 모두 집중! 이제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해산 후 경과보고 하도록! 이상.

준길: (맞장구치며) 일부만 남고 모두 출동해!

(순찰차들의 경광등이 일제히 점등된다. 거리는 유흥업소의 단속을 진두지휘하는 최경장을 따르는 여러 순찰차들의 행렬로 메워진다. 유흥업소 근처에 도착한 경찰 일행은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그러나 그 유흥업소는, 아까 전에 준길이 다녀갔던 곳이다.)

최경장: (단속수첩으로 손바닥을 탁탁 치며) 여기가 그 유명한 성매매 유흥업소로구만.

사장: 무슨 소리세요? 여긴 그냥 노래방입니다.

최경장: 그래? (같이 왔던 동료들을 향하여) 살펴봐.

(시간이 지나고, 업소 안을 살펴보러 갔던 동료들이 돌아온다.)

동료 1: 별다른 게 없는데요? 그냥 노래방 기기만 있고, 사람도 별로 없고…….

최경장: (당황하며) 그래? 잠시만……. (무전기를 꺼내며) 야, 거긴 어떻게 됐어?

동료들: (무전기로)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사람도 없습니다.

최경장: (당황하며) 하, 이놈들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싹 사라지고…….

준길: (똑같이 당황하는 척하며) 그러게요…….

최경장: (생각에 잠기며) 뭐지? 옛날 같았으면 다 걸리는데……. 정보가 됐나?

준길: (뜨끔하며) 그럴 리가요! 얼마나 철통보안이었는데…….

최경장: (준길이 언성을 높이자 깜짝 놀라며) 아이고,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럼 그런가보지, 뭐.

(일행은 다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복귀한다. 단속된 업소는 준길의 덕분인지 한 군데도 없었다. 준길은 파출소로 돌아온 뒤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퇴근한다. 늦은 시각이어서 그런지,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자고 있다. 준길도 대충 옷을 갈아입고, 씻은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준길: (수차례 뒤척이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객석으로 달려가 한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내가 말이오, 오늘 무슨 짓을 했는줄 아시오? 물론 다 보셨으니 알겠지요. 난 그 대가로 업소 사장에게 40만원을 받았소. 순간은 좋았지, 나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걸리면 난 경찰에서 잘릴 것이고, 걸리지 않더라도 평생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야겠지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고민하다) 아! (웃으며) 그럴 필요는 없겠군요. 이 세상 경찰관들의 월급이 모두 쥐꼬리 같아요. 그런데, 어디 나만 그러겠소? 안 그런 경찰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 하시오! 잘못은 내가 아니라, 나라에 봉사하느라 가정을 돌볼 여력도 없는데 월급마저 쥐꼬리만치 주는 이 나라가 한 것이오! 난 절대, 잘못이 없을 것이오. 아니, 없소! 절대!

(준길은 다음날부터 파출소에 출근하면서도, 이전처럼 계속해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세운 단속일정과 정보를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알리러 다닌다. 그 대가로 준길은 뒷돈을 받는다. 처음에 40만원에서 시작한 뒷돈은 점점 불어나 어느덧 100만원을 넘겼다. 하루하루 버는 일당치곤 그 수입이 째짤했다.)

최경장: (머리를 긁적이며) 이놈들 수상하단 말야……. 전에는 잘만 걸렸던 놈들이 요즘 잠잠해. 너무.

동료 1: (한숨을 내쉬며) 그러게요. 뭔가 느낌이 안 좋네요.

준길: 뭐, 어쩔 수 없죠. 오늘까진 개네들, 운으로 버텼다고 치죠. 내일부터는 시간 변경해서 급습이라도 해보고.

최경장: (잔뜩 예민한 표정으로) 이런 빌어먹을! (은근 준길을 비꼬며) 운 한번 더럽게 좋네, 벌써 일주일 넘게 버티다니, 그치? 그리고 시간대를 왜 변경해? 어차피 그때 개네 일도 안할 텐데.

준길: 그러려나……. (눈치를 살피며, 시계를 보며) 저……. 10시 다 됐네? 저 아내가 기다려서 먼저 퇴근해봅니다.

최경장: 잘 들어가.

(준길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다.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들은 자고 있는데 아내는 깨어있다. 준길은 아내의 눈치를 살핀다.)

준길: 여보, 뭐해? 자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내: 그냥……. TV 드라마 보다가 여보 올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기다렸지.

준길: (품에서 봉투를 꺼내며) 여보, 이거 받아.

아내: (봉투를 열어보고,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니, 이게 뭐야?

준길: (뿌듯해하며) 선물이지.

아내: 아니, 당신에게 이렇게 큰돈이 어디 있다고 이래? 오늘 월급날도 아니면서…….

준길: (눈치를 보며) 보너스야, 보너스. 일 열심히 한다고 우리 서에서 줬어. (장담하며) 앞으로도 경찰 일 열심히 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아내: 여보 최고네, 최고! 짱이야, 완전!

준길: 먼저 자, 피곤할 텐데.

아내: (잔뜩 기뻐하며) 그래! 고마워요, 내 남편~ 잘 자요.

(아내는 불을 끄고 자러 들어간다. 준길은 아내가 자러 들어갔음을 확인한 뒤, 방백으로 외친다.)

준길: (관객을 바라보며, 웃으며) 하, 보셨지요? 내가 오늘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저리도 좋아하더군요.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여전히 웃으며)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보를 누설하고 다녔는데도, 다들 날 잡지도 않고 심지어 의심조차 안하네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이 경찰의 모토인데, 풋, 천만예요. 나 같은 사람도 못 잡으면서 무슨……. (비웃으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짜릿하더군요. 들키는 걸 교묘하게 피해가는 스타일도 있고, 수입도 짹짹하고……. 이 일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난 계속 할랍니다. 어차피 안 들켰잖아요, 하하.

(준길은 방백을 남기고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준길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제복을 갖춰 입고 파출소로 출근한다.)

준길: (밝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파출소의 분위기는 이전 같지 않다.)

준길: (얼굴을 굳히며) 왜 그래, 다들.

(그때, 최경장이 준길에게 다가온다.)

최경장: (따져묻는 듯) 야, 김경장. 너 뭐냐? 너 뭘 일 쳤냐?

준길: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허, 왜요? 난 잘못된 게 없는데?

최경장: 야, 니 바른대로 불러. 인마, 너 경찰청 경리과에서 사무감사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준길: (소스라치게 놀라며) 에? 경리과에서 날 감사하러 왔다고요?

최경장: 너 당분간 수사 지령 없을 거다. 순찰에서도 빠져라. 파출소에서 자리 5분 이상 비우지 마라. 나도 뭐가 뭘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사무감사 나온 거 봐서는 너 이대로 뒀선 안 될 것 같다.

준길: (억울하다는 듯) 아니, 난 정말 아무 잘못도 안했다니까요?

최경장: (무뚝뚝하게) 나도 몰라, 니가 잘못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데 그냥 그렇게 해. 당분간 너 처신 잘 해야 할 거다.

(준길은 최경장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파출소 밖으로 뛰어나온다. 준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려온다. 그 동안의 잘못이 들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서이다. 준길은 다시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가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잡는다. 그리고 평소에 연락하던 유흥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건다.)

사장: 여보세…….

준길: (말을 끊으며) 잠깐! 다 필요 없고. 몇 마디만 합니다. 어떤 새긴지는 몰라도 누가 우리들 비선라인을 끈지른 것 같소. 나 지금 경찰청 경리과에서 사무감사 대상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사장: (놀라며) 네? 진짜요?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준길: (체념하며, 목소리를 낮게 깔며, 흥분하며, 빠르게 말하며) 몰라. 당신들, 문 닫기 싫으면 입 닥치고 가만있어. 절대로 내가 정보를 흘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한테 돈 줬다는 말도 하지 마. 어차피 난 당신들에게 계좌로 돈 받은 적 없으니까 당신 같은 업주들만 입 가만히 닫고 있으면 돼. 그거 알려지는 순간 나나 당신들이나 끝장이니까, 우리 서로서로 뒤 봐주자고.

사장: (두려워하며) 당연 그래야죠……. 저희도 장사해야 하는데…….

(그때 최경장이 파출소 밖으로 나온다.)

준길: (다급하게, 당황하며) 야, 사람 나온다. 끊어!

(준길은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최경장에게 다가간다. 최경장과 눈이 마주친 준길은 아무 말도 않는다. 이내 최경장이 고개를 돌리자 준길은 아무 말 없이 파출소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그날, 오후 10시가 넘도록 준길은 퇴근하지 않는다. 다른 동료들은 당직만 빼고 모두 퇴근한 시각이었다. 준길은 휴대폰을 빼서 아내에게 연락을 넣는다.)

준길: (불안한 목소리로) 여보, 나야.

아내: 왜요? 오늘 당직인가?

준길: 응.

아내: 그래요. 무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들어와요. 나 먼저 잘게요.

준길: 여보.

아내: 왜요?

준길: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사랑해.

아내: (왜 이러냐는 듯) 아니,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래요?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전! 알았지?

(준길은 전화를 끊는다. 야근을 나온 동료들이 모두 준길을 쳐다본다. 그리곤 서로서로 수군대기 시작한다. 준길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독백으로 쓸쓸히 말한다.)

준길: (혼자만 들리게) 내가……. 안 들길 줄 알았는데, 결국……. 왜 그랬을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꼭 오늘날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구나. 저기 저 수군대는 동료들을 보아하니, 내 경찰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구나. 내가 한심해진다. 그깟 돈 좀 벌어보겠다고 양심을 팔다니……. 앞으로 내 아내 얼굴 부끄러워서 어찌 보고, 내 아들들 떳떳하지 못해 어떻게 놀아줄까.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구나.

(준길은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투닥거리며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사직서였다. 사직서를 완성한 준길은 인쇄해서 종이봉투에 담는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머지 박박 찢어버린다. 하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사직서를 쓰지만, 역시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박박 찢어버린다. 준길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시름에 빠진다. 그러다 경찰청 경리과 사무조사를 거쳐 비리경찰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고 손가락 질을 받으며 잘리느니, 차라리 스스로 경찰복을 벗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이르러 다시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를 쓴 뒤, 인감을 찾았다. 근무하는 테이블 서랍을 여니 인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인감이 눈에 잘 들어온다. 모두 하늘의 뜻이겠지 싶어 준길은 사직서에 인감을 찍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찾아가 사표를 내고 파출소로 돌아왔다.)

동료 1: (어리둥절해하며) 어? 김경장님, 왜 사복이세요?

준길: (미소를 지으며) 짜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국민 앞에 정직하고 떳떳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동료 1: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장님, 설마…….

준길: (한숨을 쉬며) 최경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다시 백수로 돌아갑니다.

최경장: (무뚝뚝하게) 그래. 너도 수고 많았다. 돌아가서 푹 쉬고, 재기해야지.

준길: (한탄하며) 할 수나 있으려나요.

동료 1: 이대로 가지게요? 그 감사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경장님 떳떳하시잖아요! 그냥 받으시

면 되지 뭐 하러…….

준길: (동료 1의 어깨를 토닥이며)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동료 1: (놀라며) 네?

준길: 전 이만 가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동료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준길은 파출소를 나온다. 파출소 정문을 걸어 나오니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불어 닥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파출소 정문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한그루에서 높고 병든 나뭇잎 하나가 옷걸이에 걸어 손에 든 제복 위에 떨어져 있었다.)

준길: (관객을 향해) 어머니……. 어찌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못한 아들을 용서하세요…….

(준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집에 왔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달려 나온다.)

아내: (웬일이냐는 표정으로) 여보, 웬일로 일찍 왔어?

준길: (기죽은 표정으로) 하…….

아내: (남편을 걱정하며) 뭐 일 있어요? 말해봐, 다 들어줄게.

준길: 그게…….

아내: 응.

준길: 나 잘렸어…….

아내: (화들짝 놀라며) 뭐? 왜? 당신이…….

준길: 실은……. 내가 건넸던 그 돈들 말야……. 성매매 업소라든지 노래방들이라든지, 그런 유흥업소들 사장들에게 단속 정보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돈이야……. 그거 걸려서 감사 받고 쫓겨났어.

아내: (분노하며) 뭐? 당신이 그랬어? 미쳤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될 거 아냐?

준길: (어이없어하며) 당신이 자꾸 내가 돈 벌어들 때마다 언짢아했으면서, 뭘 바라?

아내: 가지가지 한다, 아주. 당신 비리는 둘째 치고, 앞으로 직장도 없는데 뭘 먹고 살거야?

준길: (화를 내며)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면 되잖아!

아내: (어이없어하며) 말은 쉽지. 당신이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완전 헛뽕이었구만? 당신 그런 말할 재

주라도 있으면 빨리 어디 가서 훔쳐서라도 돈 벌어와! 이대로 우리 못살아. 어쩔 거야? 저기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저 두 애는 또 어쩔 거고? 당신이 상황을 알기나 해?

준길: 알아! 안다고.

아내: 그래, 알아서 해라, 이제.

(준길은 방문을 쿵 닫고 걸어잠근다. 두 아들들은 준길과 아내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온다. 준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웠다. 그 순간, 준길의 허리가 옥신거리기 시작한다. 옛날에 있었던 지병인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이 도져, 갑자기 심해진 것이다. 준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침대에 누워 신음을 했다.)

아내: (무뚝뚝하게) 여보, 문 열어.

준길: 왜.

아내: 내가 못 살아……. 휴……. 어쩌다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거 내가 오늘 부업해서 벌어들 돈이니까 필요하면 쓰고, 이거 약이니까 아프면 먹어.

준길: 그래.

(준길은 아내가 벌여준 돈과 약을 받아든다. 허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어 대충 저기 한구석에 약과 돈 봉투를 휙 던져놓는다. 우연찮게 거울을 본다. 준길의 머리와 얼굴은 부스스하고 께죄죄한 꼴이다. 준길은 앓아누운 채, 움직일 수가 없어 몇 달 동안 두문불출이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준길의 아내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현관부터 터벅터벅 걸어와 노트도 없이 준길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준길: (통명스럽게) 왜.

아내: 여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살아.

준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아내: 이혼해.

(아내는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서류를 들이민다. 준길은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다.)

준길: (관객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내의 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네, 그렇죠. 찍어줘야겠지요. 저는 순간을 참지 못한 아내가, 부부의 연까지 맺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아내가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숨을 내쉬며, 깊이 후회하며) 어쩌다가 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내가 그 부정축재란 것에 손만 뻗치지 않았더라면……. 아내에겐 정말 미안합니다. 애초에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준길: (인감을 찾아 꺼내 찍은 뒤) 여기. 그동안 고마웠어.

아내: (통명스럽게) 나도. 아,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 상태 보니까 책임 못질 것 같아.

준길: 그럴래? 잠시만……. (방에 있는 장롱 서랍 속을 뒤적여 월급 통장을 찾아 건네며) 여기. 여기에 우리 아직 덜 쓴 내 월급하고 퇴직금 다 들어있을거야. 위자료로 줄게. 내 아들들, 잘 부탁해.

아내: 그래.

준길: (두 아들에게 다가서며) 애들아. 아빠는 오늘부터 집에 잘 못 들어 올 거야. 아빠가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날까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아들들: (울먹이며) 네.

(준길은 대충 짐을 싣 뒤, 아내와 작별하고 나와 차를 정처 없이 몰기 시작한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지만, 전 재산이라곤 주머니에 꽂아둔 몇 십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그렇게 정처 없이 차를 몰다가 날이 저물어 왔다. 초겨울의 날씨는 방금 실직하고 이혼까지 당한 준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당장이 먹을 것도, 잘 곳도, 입을 것도 없는 준길은 도로 한 구석에 차를 댄 뒤, 히터를 틀고 눈을 붙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준길은 또다시 정처 없이 차를 몰기 시작한다. 그때였다. 과속을 했는지, 교통경찰이 호각을 불어 준길의 차를 세웠다.)

교통경찰: (눈썹 옆에 거수하며, 무뚝뚝하게) 속도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십시오.

준길: (자신 없는 목소리로) 저 경찰인데…….

교통경찰: 네? 경찰이시라고요?

준길: (당황해하며) 아, 아……. 아닙니다. (지갑 속에서 면허증을 꺼내며) 여기 있습니다.

교통경찰: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준길: (독백으로) 원래 같은 경찰들끼리는 속도위반해도 봐주는……. 아니, 난 이제 경찰이 아니구나. 내 지갑에 있는 경찰신분증은 이제 한낱 옛날의 명함에 지나지 않겠구나. 이거 어째 이혼장에 인감 찍어줬던 거 보다 더 서글퍼지네? (눈시울이 붉어진다) 진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준길은 차를 정처 없이 몰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음을 느끼고, 차를 세운 뒤 길가를 또 정처 없이 걸었다. 걸다보니, 길가에 도열한 상점들이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게시글들이 보인다. 뭐라도 해야 벌어먹고 살겠거니 싶어 아무데나 몇 군데 들어가 구직을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삼겹살집과 주유소, 치킨 집 배달 알바직을 구하는데 성공하여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때는 아침이다.)

삼겹살집 사장: (손으로 한구석에 쌓여있는 불판들을 가리키며) 저게 어제 손님들이 먹은 뒤에 거둔 불판인데, 저거 좀 오늘 내로 다 닦아 놓으세요.

준길: 네.

(때는 점심이다.)

준길: (무미건조하게) 어서 오세요.

손님: 경유로 5만원 넣어주세요.

준길: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때는 저녁이다.)

치킨집 사장: (소리치며) 야! 빨리 가! 지금 주문이 몇 개가 밀렸는줄 알아?

준길: (힘없이) 예, 갑니다. 가요.

(새벽 1시가 되어 준길은 퇴근해 차로 돌아와 주유소에서 일하며 공쳐둔 기름 몇 리터를 넣고 히터를 돌려 눈을 붙인다. 그러다 경찰 생활을 했던 옛 시절이 생각난다. 준길은 눈을 붙이다 말고 헛웃음이 나온다.)

준길: (관객을 향하여, 울먹이며) 정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알고 있거나 합니까? 난 지금 고깃집 불판 닦고, 주유소에 총질하러 다니고, 난생 처음 오토바이도 몰고 있어요. (흥분하며, 울음을 터뜨리며) 지금……. 물 불 안 가리고 손 적시고 팔 데이며 일하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 손과 이 팔로 어떤 일을 했는줄 알아요? 이 손과 이 팔로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조서랑 영장을 받아 범인들을 검거했었다고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세상이 내 자존심을 이리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네요. 죽고 싶지만,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아니, 내겐 죽을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내가 꼭 실망시켜드린 어머니는 잘 계실까요? 예휴, 내 처지에 누굴 감히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승자박인데……. 젠장.

(무대가 바뀐다. 시간이 흘러 꺾어진 꼴을 하고 있었던 준길은 어느덧 번듯한 양복으로 갈아입혀져 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의 손에는 불판과 주유소 주유기와 철가방 대신 광택 나는 만년필과 법전이 들려있다.)

준길: (관객을 향하여, 차분히 설명하듯)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내 지난 모습을 살펴보느라. 물론 내 과거라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나는 여러분 앞에 떳떳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우쳤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별의 별 일들을 도맡아 하며 별 사람들을 다 만났죠. 그만큼 경험도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 오면서 강과 약, 갑과 을, 선과 악의 경계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게 되었습니다. 강이 되더라도 바르게 강해야 되고, 갑이 되더라도 바르게 갑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바르게 살자'입니다. 선은 명백하게 악을 이긴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과 사회가 깨끗해지니까요. 이것은 지난 나의 지옥 같았던 인생을 거쳐 얻은 값 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내 값비싼 교훈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지난날의 나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다)

준길: (관객들에게 말하다 말고) 여보세요?

아들: (반가워하는 듯) 아빠, 저예요! 잘 계시죠?

준길: 어, 아들. 웬일이니? 너가 전화를 다하고…….

아들: (당당하게) 저 결심한 게 있어서요.

준길: 결심? 뭔데?

아들: 저 군대 제대하면 경찰시험 보려고요.

준길: (감탄하며) 이야, 우리 아들 멋지다. 그래. 꼭 열심히 해서 훌륭한 경찰이 돼야 해. 아빠처럼 못한 전철을 밟지 말고, 꼭 양심과 청렴을 굳건히 지키는 멋진 경찰공무원이 되길 바라. 알았지? 아빤 너가 훌륭한 경찰이 되리라 믿는다.

아들: (당연하다는 듯) 당연하죠.

준길: (호탕하게 웃으며) 허허, 좋다. 경찰시험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음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이래 봐도 경찰이었잖니.

아들: 네!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준길: 그래. 내 아들.

(준길은 전화를 끊자마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무리에 섞여들어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간다. 도착한 사무실에는 이미 박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와 있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온다.)

준길: 여보세요?

남자: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이진호라고…….

준길: 아, 그 일요일에 상담 받고 가신 분이죠?

남자: 네.

준길: 무슨 일이세요?

남자: (해맑은 말투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몇 백 만원이나 더 부르더라고요. 사무장님이 가장 좋으시고 친절하신 분 같아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길: (관객을 향해 웃으며) 네, 그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다. 주인공과 남자가 무대 뒤로 일제히 퇴장하면서 막이 내린다.)

끝.